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Theoretical Model*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김 영 희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Yeong Hee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논의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personal and spousal characteristics, mediated by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behavior, on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On the basis of previous literature, the theoretical model was specified, estimated, and evaluated for adequacy of statistical fit for samples of 214 married women. Although the initial model was not supported by data, the revised model fitted the data adequately.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family-of-origin and communication behavior directly affected marital quality. However, the personal and spousal characteristics were linked with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only if they were mediated by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behavior. Communication behavior was strongly related to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problem-solving behavior. The model also showed marital quality can be an antecedent variable for marital stability. The findings of results is to generate more broad-minded thinking about how communication behavior, marital quality, and marital stability are interrelated.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현대인의 가치

관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혼과 가족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됨에 따라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매우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가족원의 역할이 불분명해져 현대가족은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이 논문은 (1997)년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있다. 특히 가족관계가 부부중심으로 변화한 현대사회에서는 부부의 애정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표면화되고, 결혼관계 해체 가능성이 더 높아져 주요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Glenn, 1990; Markman, Stanley, Blumberg, 1994).

부부관계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는 동시에 다음 세대를 양육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불화나 갈등은 성인들의 삶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들은 결혼생활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나 갈등은 가족원에게 여러 형태의 역기능적인 문제와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성인, 특히 여성들은 결혼생활의 문제로 심한 우울증이나 정서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최규련, 1993; Beach, Sandeen, & O'Leary, 1990; Fincham & Bradbury, 1993; Coyne, Kahn, Gotlib, 1987), 남성들은 결혼생활의 불화로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유발하고 수명을 단축시키며(McAllister, 1995; Wickrama et al., 1997), 자녀들은 불안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내적인 문제로 행동장애나 비행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1990년대 이후에는 결혼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Brody, Arias, & Fincham, 1996; Cummings & Davies, 1994).

이에 따라 학자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혀내어 결혼과 가족생활을 강화시키고 현대가족의 위기를 상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그 요인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는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문헌 전반에 걸쳐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사회환경적 배경요인(최현실, 1988; Holman et al., 1994), 개인적 특성 요인(DeMaris & MacDonald, 1993; Schafer, 1996), 상호관계적 요인(Kurdek, 1993) 등으로 나타나 있으나(Cate & Lloyd, 1992; Wambolt & Reiss, 1989), 이 세가지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결혼

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다. 다시말해서 각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부족하여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역동적이고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사회과학에서 인과모델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인과모델의 검증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Cate와 Lloyd(1992)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관계는 역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관계에 관련된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이나 상대적 영향력을 다변인 모델 안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다.

둘째, 1980년대 이후부터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예측요인 중 상호관계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비해 상호관계적 과정에 관련된 개념이 불명확하다. 즉, 상호관계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크게 의사소통과 갈등해결로 나뉠 수 있는데 이 둘의 개념을 한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독립적이면서 상호연관성을 갖는 개념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Bradbury와 Fincham(1993), Stanely등(1995)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한 측정도구로 평가하는데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의사소통과 갈등은 상호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연관된 개념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결혼생활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소통 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을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연관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이해하는데는 역동적인 상호관계적 과정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의사소통 변인과 갈등해결 변수의 상호적 관계를 한 모델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개념적인 혼란과 평가도구의 불일치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결혼생활의 질은 부부관계의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고 있으며,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결혼생활의 상태, 즉, 이혼이나 별거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으로 인해 결혼생활의 질이 낮더라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관계를 지속하는 부부들이 많아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단순히 이혼이나 별거의 현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질은 부부관계나 적응과 같은 총체적인 개념을 여러 가지 하위 개념으로 개념화-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 이 방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Spanier와 Lewis (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혼생활의 질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개념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전체개념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정현숙, 1997; Fincham & Bradbury, 1987; Norton, 1983; Sabatelli, 1988; Schumm, 1986). 이와같이 개념과 측정도구에 대한 혼란으로 대부분의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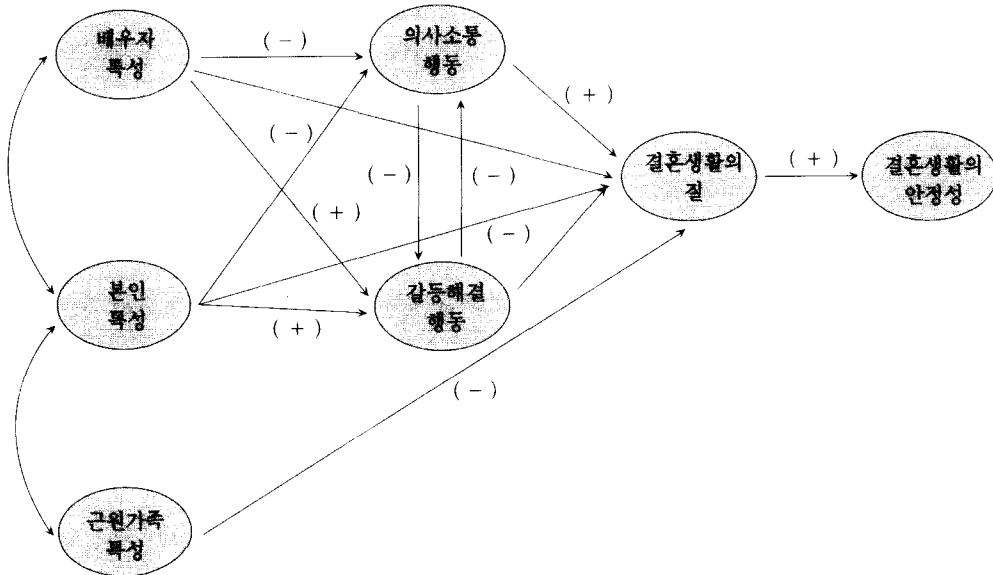
인 분석과 논의를 다루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이론적 제안도 거의 없어 이 두 개념을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적 고찰을 바탕으로 세운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통하여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근원가족 특성요인, 개인적 특성요인, 상호관계적 요인인 의사소통 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합적으로 규명하여 결혼생활을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내용은 그림 1의 이론적 모델에 제시되어 있으며, 모델의 검증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그림 1의 모델을 자료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를 검증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림 1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설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1) 근원가족의 특성은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그림 1〉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이론적 모델

영향을 미치고,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본인특성은 의사소통행동, 갈등해결행동,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을 매개체로 결혼생활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행동, 갈등해결 행동,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3) 배우자 특성은 의사소통행동, 갈등해결행동,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을 매개체로 결혼생활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행동, 갈등해결 행동,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4) 의사소통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 (5) 의사소통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은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혼생활의 질을 매개체로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6) 결혼생활의 질은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8) 본인특성과 배우자 특성의 잔여분 변수들은 서로 상관이 있다.
- (9) 본인특성과 근원가족 특성의 잔여분 변수들은 서로 상관이 있다.

II. 이론적 모델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질은 현재의 결혼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전체적인 개념으로 평가하였고,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이혼이나 별거의 상태와 더불어 이혼이나 별거를 향한 주관적인 경향까지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변인 모델에서는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1.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근원가족의 특성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사회환경적 배경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요인, 현재 상황적 요인, 근원가족의 특성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연령, 교육, 수입, 직업,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십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결혼한 사람들은 그 후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이혼율이 2배나 높고, 부부의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혹은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결혼의 질과 안정성은 떨어진다(Martin & Bumpass, 1989; Kurdek, 1993). 사회경제적 지위는 결혼안정성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자녀존재와 종교 역시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대해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상황적 요인은 가족생활주기와 직업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에서 오는 외적 압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중산층으로 하고 결혼지속연수를 10년 미만으로 한정하여 사회문화적 요인과 상황적 요인은 통제하였다. 왜냐하면 선행연구에서는 근원가족의 특성이나 부모의 과잉간섭이 결혼생활의 질적인 측면에 더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Benson et al, 1993; Kelly & Conley, 1987).

근원가족(family of origin) 요인은 자신이 자라온 가족배경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여부, 근원가족의 역기능적 요소, 부모의 정신건강, 부모의 지원망 정도 등이 이에 속한다. 1979년 이후의 연구는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생활의 질도 높다는 Lewis와 Spanier(1979)의 가설을 계속 지지해왔다. Glenn과 Kramer(1987)가 주장하듯이 부모의 결혼생활은 설명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결혼생활에 중요 관련요소로 보인다. MaLanahan와 Bumpass(1988)는 특히 편부모에게서 자란 여성의 결혼생활은 해체될 위험성이 높고, 남성에게는 부모의 이혼이 미치는 영향이 여성보다

더 크다고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혼한 자녀는 결혼에 대한 책임성이 적고,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혼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Glenn & Kramer, 1987).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상태보다는 그러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모의 갈등이나 근원가족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냈다. 가장 최근에 장기적 연구를 수행한 Holman과 그의 동료들(1994)은 갈등이 만연한 가족환경적 배경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냈다. 특히 남편의 가정환경적 배경이 아내보다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 또한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아내보다 남편의 가정환경적 배경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Vaillant(1978)와 Kelly와 Conley(1987)등은 1930년대에 결혼한 집단에 대한 장기적 연구를 통해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가족환경적 요인과 같은 근원가족 특성이 결혼생활이나 행복도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아냈다. Vaillant는(1978) 부모가 정신적으로 불건강하고, 신경증적 수준이 높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낮고 이혼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혼한 여성의 대부분은 가족간의 갈등과 긴장이 많고, 가족간에 애정이 부족하며, 불안정한 가족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혼한 남성들은 어머니와 너무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남성들의 이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원가족의 원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이 높아지며, 부모가 처음부터 반대한 결혼은 결혼생활의 문제점이나 이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Booth & Johnson, 1988; Whyte, 1990). Couillard (1990)에 의하면 근원가족에 대해 지각한 정서적 건강수준이 부부 모두 높을 때 결혼적응이 가장 높은 반면 정서적 건강수준이 부부 모두 낮을 때 결혼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근원가

족의 특성이 결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임을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어 이론적 모델에서는 근원가족 특성이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2.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개인적 특성

Larson과 Holman(1994)은 문헌적 고찰을 통해 개인적 특성과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안정적인 개인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Lewis와 Spanier (1979)가 문헌적 고찰연구에서 찾아냈듯이 신경증적 행동과 같은 정신적 건강요인이나, 감정적 건강과 자아개념과 같은 특성, 대인관계기술이나 보수성과 같은 특성들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를 선행연구에서는 신경증, 자아개념, 인성, 감정적 건강, 정신적 건강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감정적 안정성 혹은 감정지수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 결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Dykstra(1996)는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은 배우자에게 책임을 더 많이 느끼고, 상대방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며, 상대방의 행복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반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며, 자신의 행복은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여겼다. 이 연구결과와 흥미로운 점은 감정적 안정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별 차이가 없어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개인적 특성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특성 또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ucom & Epstein, 1990; Eidelson & Epstein, 1982; Larson, 1992). 최근의 장기적 연구에서 Kurdek(1993)은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을 문제라고 인식하면 할수록 상대배우자는 배우자와 의사소통의 단절을 느끼거나, 배우자와 정서적인 연결감을 갖지 못하여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많이 느끼거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거나, 부부간에 일치도가 적어 갈등이 만연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배우자가 알콜문제나 흡연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혼외정사의 빈도가 빈번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른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경우보다 결혼의 질과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DeMaris & MacDonald, 1993; Kelly & Conley, 1987; Whyte, 1990).

둘째,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에는 성차가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Bentler & Newcomb, 1978; Holman et al., 1994; Kelly & Conley, 1987).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이 성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강력한 뒷받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연구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연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직접적인 검증을 통하여 개인적 특성과 결혼생활과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변수분석에서 개인적 특성요인은 대체적으로 사회환경적 요인보다 더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고 하였다(Bentler & Newcomb, 1978; Kelly & Conley, 1987). Bentler와 Newcomb(1978)의 장기적 연구에서 개인적 특성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예측인자로 나타난 반면 사회환경적 배경은 회귀분석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는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사회환경적 배경보다는 상대방의 개인적 특성을 아는 것이 또한 개인적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근원가족의 특성을 아는 것이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개인적 특성과 커플의 관계적 상호작용 과정과는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사실 결혼생활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개인특성이나 아니면 상호작용적 과정이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Kelly와 Conley(1987)는 개인적 특성의 관점이 최근에는 간과되고 있지만 결혼생활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데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ottman(1994)도 개인적 특성이 이혼

을 예측하는 중요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인적 특성이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 행동과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파괴적인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 행동은 파트너의 인성특성의 파생물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개인적 특성과 부부의 관계적 측면은 상호작용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같이 개인적 특성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의 중요한 예측인자임과 동시에 부부의 상호작용적 과정에 영향을 미쳐 결혼생활의 질이나 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에서는 본인특성과 배우자특성은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또한 상호관계적 요인인 의사소통 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가설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3.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상호작용적 요인

1) 의사소통행동

결혼생활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Noller & Fitzpatrick, 1990). Filsinger와 Thoma(1988)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는 스트레스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에게는 스트레스가 많다. 또한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부부일수록 의견일치의 빈도가 높고(Schaap et al., 1988), 부정적인 감정을 덜 주고받으며(Gottman, 1993; Levenson & Gottman, 1985), 배우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차리고(Noller, 1984), 같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많아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Kirchler, 1988). 결혼상담가들은 부부가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부부가 떨어져 있는 하루동안 서로에게 무슨일이 일어났는가를 발견하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실제적으로 부

부간에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ickson-Markman(1988)과 그의 동료들은 일기연구를 통하여 부부가 나누는 일상생활의 공통대화는 주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자녀문제, 근원가족과의 관계, 친구나 이웃, 그리고 음식에 관한 것임을 알아냈다. 대체적으로 부부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두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싸울때나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일기연구에서는 행복한 부부는 하루 보통 7시간 정도 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행한 부부는 하루 5시간 이하 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보내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는 등 갈등에 보내는 시간이 적으나 불행한 부부는 거의 이야기 하지 않거나 같이 있으면 갈등에 보내는 시간이 서로 대화하는 시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Kirchler, 1989).

Schapp(1988)과 그의 동료들, 또한 Christensen(1988)은 불행한 부부는 행복한 부부보다 더 파괴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보인 반면, 행복한 부부는 부부간의 사회적-감정적 관계에 만족하여 사랑과 애정 표현의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의사소통 행동 연구에서는 불행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보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에 대해 더 솔직히 털어놓는 경향이 높은 것을 입증하였다(Chelune et al., 1984; Noller & Callan, 1989).

불행한 부부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의사소통 행위는 비판, 불평, 조소적인 말 등과 같이 부정적인 것이었다(Revenstorff et al., 1980; Ting-Toomey, 1983). 즉, 불행한 부부들은 명령하고, 다투고, 비판하고, 창피를 주고, 변명을 많이 하고,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쉽게 동의하며, 대화 중에 유머와 웃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행한 부부들은 상호적인 행동패턴에서 보상보다는 처벌을 더 많이 하고, 강압적이고도 확대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하며,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사건이 생기면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이와반면 행복

한 부부는 서로 보상이나 애정을 주고받고,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사건이 생기면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한 배우자는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편이었고, 특히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문제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의 고조가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방해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하고 있다(Notarius & Pellegrini, 1987). Gottman과 Levenson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갈등에 대한 신체생리적 반응이 높게 나타날수록 남편은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였다.

2) 갈등해결 행동

최근 부부의 상호작용 과정 연구는 점점 의사소통 방식이나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갈등해결 방식이나 부부간의 일치에 관한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은 어떻게 부부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는가와 어떤 문제점에 부부가 어느 정도 일치하여 갈등을 적게 갖는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많은 연구가 갈등시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의 차이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부 싸움시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결혼의 불만족도와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Noller et al., 1994). 불행한 부부나 행복한 부부 모두 갈등을 느끼고 있는 주제는 같았지만, 불행한 부부는 갈등의 빈도가 더 많았고, 갈등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더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갈등이 높은 주제는 의사소통 문제, 성관계, 상대방의 특이한 성격에 관한 것이었다.

갈등해결방식이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즉,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을 동의, 협상, 유머로 해결하고, 만족도가 낮을 때 부부는 갈등이 생기면 직접 충돌하여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거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또한 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다

부려고 하고 남편은 회피하거나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관찰을 통해 측정하나(Heavey et al., 1993; Noller et al., 1994) 부부 모두 질문지를 통해 자기보고식의 평가를 해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Heavey et al., 1993; Huston & Vangelisti, 1991).

Robert와 Krokoff(1990)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설명하는 20%가 남편의 회피/아내의 적대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남편은 결혼생활에 적게 갈등을 느낄수록 갈등시 화해하는 역할을 하지만 갈등이 심할때는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Gottman & Levenson, 1988). Christensen과 Heavey(1990)도 아내의 요구/남편의 회피 패턴은 아내가 제기한 문제를 의논할 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Kurdeck(1995)도 갈등해결방식을 충돌, 회피, 복종 세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결혼의 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남편과 아내가 관계 양상에 다른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갈등해결방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복종, 충돌, 회피 수준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회피방식은 남편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에 상관없이 서로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미래연구는 아내가 왜 회피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Bradbury와 Fincham(1993)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회피방식이 결혼생활을 강화시킨다는 결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내의 문제인지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유추된다. 남편이 충돌방식을 취하고 아내가 회피방식을 취하는 부부의 남편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의 결혼생활 관여도가 너무 높거나 혹은 세력이 낮은 남편이 충돌로 자신을 보상하려는 방편이 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Babcock et al., 1993).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내가 회피방식을 자주 사용하지 않을때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다. Gottman(1993)이 지적하였듯이 갈등을 회피하면 장기적으로 감정적인 거리를 넓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남편의 해결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갈등해결방식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회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관계전문가'로서 사회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Worrell, 1988).

이와같이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환경적 요인, 개인적 특성요인, 상호관계적 요인등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변수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들 사이에 안보이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함을 알 수 있다. 문헌고찰의 결과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특히 장기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이 세가지 예측요인이 어떻게 상호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이론적모델에서는 부부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의사소통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결혼생활 10년 이내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67.1%라는 통계에 근거하여 결혼 지속연수가 10년 미만인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편의상 청주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목적적 의도 표집으로 어린이집 2개, 유치원 2개, 초등학교 3개교에서 표집되었다. 질문지는 아내용과 남편용으로 구분하여 한 학생에게 2부씩 배부하였다. 지역의 선정은 주택지구와 아파트지구를 비슷하게 안배하여 조사대상자의 계층을 중산층으로 한정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학생이 부모에게 질문지를 전달하면 부모가 직접 기입한 후 봉투를 봉한 뒤 다시 학생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로 가져와 제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질문지는 아내용 300부와 남편용 300부를 배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내용 214부(응답률은 71.3%임)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예비조사는 1998년 10월 3일부터 27일 까지 부모 교육에 참가한 부모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설문지를 본조사에 이용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11월 10일부터 1998년 12월 5일 까지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되는 개념은 7개로 그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근원가족의 특성

근원가족의 특성은 근원가족의 역기능적인 면을 측정할 수 있는 Lopez등(1986)의 Family Structure Survey(FSS)를 번안·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20문항으로 부모-자녀의 역할전이, 부모의 과잉보호,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로부터의 분리불안등 4가지 하위개념으로 이루어져 타당도와 신뢰도가 여러 문헌에서 입증되어있다. 사전조사를 통해 질문 문항의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총 20문항 중 16문항만을 선정하여 이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근원가족의 역기능적인 특성이 높음을 나타내며 신뢰도는 .84이었다.

2) 본인특성

본인특성은 본인의 감정적 안정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California Q-Set(John, 199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QS는 Five Factor Model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특성을 5개의 하위개념으로 측정하는 평가 도구인데 그 중 감정적 안정성의 하위영역만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4단계 리커트형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적 안정도가 낮고 충동적인 특성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본인특성의 Cronbach α 는 .76이었다.

3) 배우자특성

배우자특성은 Olson, Fournier, Druckman(1987)의 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ENRICH)의 하위영역 중 개인적 특성에 관한 하위영역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0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는 .82이었다.

4) 의사소통행동

의사소통 행동은 Melby와 그의 동료들이(1995) 고안한 Positive Marital Interaction Index를 번안·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부부의 의사소통 행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애정적 원조적 의사소통 행동, 친사회적 행동, 주관적 의사소통 행동, 반응적 경청 행동 등의 네가지 하위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점수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행동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내적일치도는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5) 갈등해결행동

갈등해결행동은 Straus와 그의 동료들(1996)이 고안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CTS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TS2는 갈등해결을 태도로 측정하던 기존 도구와 달리 갈등해결을 직접적인 충돌로 즉, 신체적 폭력행동이나 언어적 폭력행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중복되는 문항과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여 총 1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갈등해결행동의 빈도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직접 충돌적인 갈등해결 행동 즉, 언어적·신체적 폭력이나 충동적 갈등해결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해결행동의 Cronbach α 값은 .83이었다.

6) 결혼생활의 질

결혼생활의 질은 서동인, 정현숙(1993)이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시 되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추어 Schumm과 동료들이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1986)를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통하여 평가되었다. 결혼생활의 질을 단일차원에서 평가해야 하는 이유와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입증은 정현숙(1997)의 최근 연구에 나타나 있다. 문항은 4문항으로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배우자로서의 만족도, 부모로서의 만족도 1점(매우 불만족하다)에서 7점(매우 만족한다)으로 평가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질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7) 결혼생활의 안정성

결혼생활의 안정성은 단순히 이혼이나 별거의 현상으로 평가하지 않고 이혼이나 별거의 상태와 더불어 이혼이나 별거를 향한 주관적인 경향까지 측정할 수 있는 Weiss와 Cerreto(1980)의 Marital Status Inventory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나는 배우자와 심하게 싸우고 난 뒤 별거나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혼이나 별거 문제에 대해 친구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한 적이 있다' '나와 배우자는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한다' '나는 배우자와 별거 중이다' 와 '나는 이혼신청을 했다' 까지 결혼의 안정성 과정을 측정할 수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α 는 .84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과 LISREL(Linear Structural Equation)VIII을 통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은 기초통계자료를 산출하였으며,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LISREL VIII을 이용한 공변량구조분석을 하였다. 추정치(parameter)의 추정은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3.50이었고(SD=5.40) 배우자는 36.72세(SD=5.50)이었다. 결혼지속 연수는 평균이 8년(SD=5.43)이었고, 자녀수는 평균 1.78명(SD=.61)이었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7.3% 대졸이상이 37.6%를 차지하였고, 남편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1.6% 대졸이상이 64.1%를 차지하였다. 배우자의 직업은 사무직이 52.1%, 전문직과 관리직이 21.4%이었다. 연구대상은 전업주부가 전체의 70.1%를 차지하였고, 한달 총 수입은 평균 약 171만 원이었다. 소득과 교육수준, 또한 직업분포로 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은 거의 중류층으로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론적 모델의 검증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137에서 .664사이로 다 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았고, 변수들의 정적·부적 상관의 방향은 이론적 모델에서 예측하였던 방향으로 나타났다.

초기 이론적모형을 분석한 결과 χ^2 값이 107.78 ($p < .05$)로 측정변수간에 공변량이 존재하여 이론적 모델이 적합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즉, 여기서의 목적은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것인데 .05 수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초기 이론적 모델을 뒷받침해주지 않았으므로 모델의 수정이 요구된다. 또한 기초부합치(GFI: Goodness of Fit Index)는 .88, 조정부합치(AGFI: Adjusted Goodness

〈표 1〉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기초통계

	근원가족	본인특성	배우자특성	의사소통행동	갈등해결행동	결혼생활의 질	결혼생활의 안정성
근원가족							
본인특성	.278**						
배우자특성	.181	.229*					
의사소통행동	-.215*	-.365***	-.664***				
갈등해결행동	.137	.375***	.391***	-.510***			
결혼생활의 질	-.368***	-.215*	-.439***	.616***	-.442***		
결혼생활의 안정성	-.273**	-.341***	-.420***	.562**	-.409***	.525***	
M	2.17	1.92	1.91	1.87	2.01	5.82	2.65
SD	.46	.43	.49	.45	.33	1.54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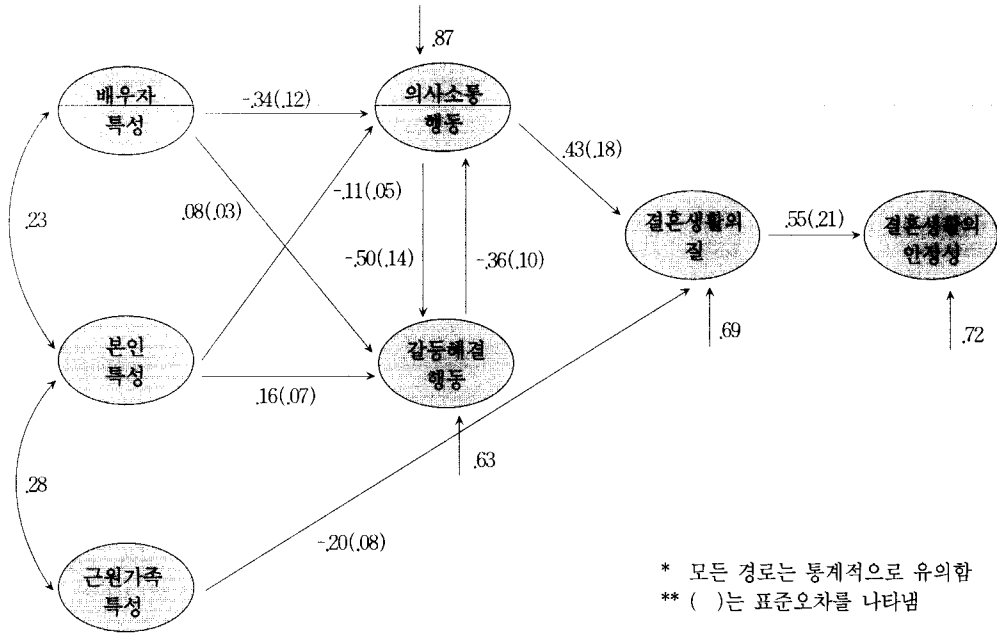
*P<.05 **P<.01 ***P<.001

of Fit Index)는 .83로 부합도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다. LISREL 분석에서는 표본크기가 200이상일 때 기초부합치가 .90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95 이상이면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McCallum, 1986). 또한 모델의 공변량과 자료의 공변량 차이를 나타내는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s)은 .20을 나타냈다. 표준잔차(standardized residuals)도 .26으로 나타나 모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20보다 차이가 있어 먼저 추가지수(Modification Index)를 참조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추가지수를 참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한 개씩 제거해 가면서 모델의 적합도 수준을 비교하여 모델을 수정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다 제거해도 추가지수는 계속 의사소통과 결혼생활의 안정성간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즉, 의사소통 행동이 직접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한 개 더 첨가하면 모델의 적합도가 더 높은 모델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모델수정은 통계적으로 나타난 추정치보다는 선행연구나 이론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Long, 1983) 마지막으로 선정된 구조적 모델에서는 의사소통과 결혼생활의 안정성간의 경로를 제외시켰다. 〈그림 2〉에 나타난 구조적 모델은 χ^2 값이 66.72($p=1.00$)이었고, 기초부합치는 .93, 조정부합치는 .90, RMSR은 .14, 표준잔차는 .21로 여러 부합지수를 비교한 결과 비교적 예측력이 좋은 모델로 나타났다.

수정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2〉의 구조적 모델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근원가족의 특성은 예측한 바와 같이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gamma=.20$)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자라온 가정을 역기능적으로 인지하면 할수록 결혼생활의 질은 낮아진다. 근원가족의 특성은 또한 결혼생활의 질을 통하여 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간접효과=.11). 근원가족특성과 본인특성의 잔차는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설을 지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결혼생활이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으며 (Glenn & Kramer, 1997), 근원가족특성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과 단순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인특성과 배우자특성은 의사소통 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생활의 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인적 특성 요인은 상호관계적 요인을 증대하여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특성은 의사소통 행동보다 갈등해결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고($\gamma=.11$), 배우자 특성은 의사소통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gamma=.34$) 보여주었다. 즉, 본인의 감정적 안정성은 배우자와 갈등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가를 더 잘 예측할



<그림 2>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모델 대한 구조방정적 모델

수 있고, 배우자의 특성은 본인특성 보다 부부간의 의사소통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적 안정성이 낮을수록 갈등을 해결할 때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해결방법을 사용한다는 Strassl와 Howe(1987)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상담실을 찾는 대부분의 여성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이유를 배우자 쪽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는 Whisman(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Whisman은 또한 배우자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부일수록 부부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며, 갈등으로 보내는 시간보다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최근 Schafer(1996)는 결혼생활의 행복도는 아내와 남편의 특성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내면서, 그 이유는 개인적 특성이 대인관계 기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Fowers와 Lyons(1996)는 결혼생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아강화 프로그램보다 부부관계 강화 프

그램이 더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자아강화는 부부관계 강화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과 본 연구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특성과 본인특성 간의 간차는 서로 상관이 있어 미래 연구에서는 배우자선택 이론과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접목시켜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서로 상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소통 행동이 갈등해결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beta=.50$) 반대인 경우보다($\beta=.36$)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 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을 한 측정 도구로 평가하는데 비판을 가한 Bradbury와 Fincham(1993), 또한 Stanely 등(1995)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이 두 변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각기 가지면서도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행동은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beta=.43$) 갈등해결행동은 의사소통을 매개체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력만을(간접효과=

.15)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갈등해결 행동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준 후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갈등해결 변수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Gottman(1994)은 부부가 갈등을 느낄 때 어떤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가를 관찰 연구하여 갈등해결을 태도나 방식으로 측정하기보다는 행동 자체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 변수를 측정할 때 Gott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부가 갈등시 직접 행하는 행동들을 측정했는데도 갈등해결은 결혼생활에 간접적인 영향력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개념을 독립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상담가들은 부부의 갈등해결 행동은 결국 의사소통 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 향상 자체가 가족치료에서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역설한 것을 반영해준다.

결혼생활의 질은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beta = .55$)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생활의 질은 안정성에 원인변수가 됨을 보여주었다.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총효과를 통해 살펴보면 의사소통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총효과 = .43), 그 다음이 근원가족 특성(총효과 = .20), 배우자특성(총효과 = .19), 갈등해결행동(총효과 = .15), 본인특성(총효과 = .09)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근원가족의 특성은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본인특성과 배우자특성은 의사소통 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결혼생활의 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인적 특성 요인은 상호관계적 요인을 중재하여

〈표 2〉 이론적 모형에 나타난 직·간접 효과와 총효과

독립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종속 변수
근원가족 특성	-.20		-.20	결혼생활의 질
근원가족 특성		-.11	-.11	결혼생활의 안정성
본인특성	-.11	-.08	-.19	의사소통행동
본인특성	.16	-.09	-.25	갈등해결행동
본인특성		-.09	-.09	결혼생활의 질
본인특성		-.05	-.05	결혼생활의 안정성
배우자특성	-.34	-.10	-.44	의사소통행동
배우자특성	.08	.18	.26	갈등해결행동
배우자특성		-.19	-.19	결혼생활의 질
배우자특성		-.11	-.11	결혼생활의 안정성
의사소통행동	-.50	-.18	-.68	갈등해결행동
의사소통행동	.43		.43	결혼생활의 질
의사소통행동		.24	.24	결혼생활의 안정성
갈등해결행동	-.36		-.36	의사소통행동
갈등해결행동		-.15	-.15	결혼생활의 질
갈등해결행동		-.09	-.09	결혼생활의 안정성
결혼생활의 질	.55		.55	결혼생활의 안정성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3. 의사소통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의사소통행동은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갈등해결행동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혼생활의 질은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본인특성과 배우자특성 또한 본인특성과 근원가족 특성의 잔차는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근원가족 특성과 의사소통행동은 결혼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만 배우자특성과 본인특성은 의사소통행동과 갈등해결 행동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갈등해결행동은 의사소통행동에 영향을 받아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갈등해결행동과 의사소통행동을 독립적인 변수로 이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연구를 위해 몇가지 제안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추가지수는 계속 의사소통행동이 직접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한 개 더 첨가하면 모델의 적합도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의 질을 안정성에 원인 변수가 되도록 가설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모델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모델을 최종 모델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미래 연구는 이 세 가지 변수 즉, 의사소통행동, 결혼생활의 질, 결혼생활의 안정성이 어떻게 상호연관되어 있는가를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측정 모델을 같이 측정하여 각 요소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근원가족 특성과 본인특성간의 잔차와 본인특성과 배우자특성 간의 잔차가 서로 상관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미래 연구는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의 특성이 근원가족의 하위개념인 부모의 갈등, 부모-자녀 관계, 부모와 자

녀의 역할 전이, 부모의 과잉간섭 등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결과해석에도 지적하였듯이 미래 연구는 배우자 선택이론과 배우자특성과 본인특성간의 관계를 접목시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사소통행동과 갈등해결행동의 독립성과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연구자들과 상담자들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연구는 의사소통행동의 어떤 측면이 갈등해결행동과 독립적이고, 어떤 측면이 상호연관성을 갖는지 밝혀 낼 필요가 있다.

넷째,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개념의 혼란과 측정도구의 불일치 문제로 인해 해석의 어려움이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단순히 이혼이나 별거 상태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 이혼할 경향이 있다거나 현재의 결혼생활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경향으로 측정하였다. 미래 연구는 어떤 조건하에서 측정했을 때 결국 이혼까지 몰고 가는가를 심도있게 측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은 이혼할 경향이거나 현재 결혼생활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아직 결혼생활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현재 결혼생활의 선택 범위가 최소화되어 있고 책임력의 강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요소는 어디에 있는가? 미래연구는 이러한 것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결혼생활이 매우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이에 관련된 요인들을 한 모델 안에서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문헌이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생활 강화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해보면 교육내용 중 '성차(gender difference)에 대한 이해' 과정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Stanley et al., 1995) 선행연구는 단순히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나 차이관계를 입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인 성차를 한 모델 안에서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가족학자들은 단순히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에 관련된 변수만을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결혼생활을 준비하고 영위하는 가족을 교육시키고, 상담해야 하며, 대인관계적 기술을 가르쳐서 각 가족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관계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서동인, 정현숙(1993). 부부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학논집*, 6, 1-36.
- 2)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3) 최규련(1993). 맞벌이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 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61-84.
- 4) 최현실(1988).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5) Babcock, J.C., Waltz, J., Jacobson, N.S., & Gottman, J.A.(1993). Power and violence: Th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power discrepancies, and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40-50.
- 6) Baucom, D.H., & Epstein, N.(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7) Beach, S., Sandeen, E.E., & O'Leary, K.D.(1990). *Depression in marriage*. New York: Guildford Press.
- 8) Benson, M.J., Larson, J., Wilson, S.M., & Demo, D.H.(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 9) Bentler, P.M., & Newcomb, M.D.(1978). Longitudinal study of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053-1070.
- 10) Birchnell, J., & Kennard, J.(1984). Early and current factors associated with poor quality marriages. *Social Psychiatry*, 19, 31-40.
- 11) Booth, A., & Johnson, D.(1988). Premarital cohabitation and marital success. *Journal of Family Issues*, 9, 255-272.
- 12) Bradbury, T.N., & Fincham, F.D.(1993). Assessing dysfunctional cognition in marriage: A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liefs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5, 92-101.
- 13) Brody, G.H., Arias, U., & Fincham, F.D.(1996). Linking marital and child attributions to family process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 408-421.
- 14) Burleson, B.R., & Denton, W.H.(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and marital satisfaction: Some moderating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884-902.
- 15) Cate, T.M., & Lloyd, S.A.(1992). *Courtship*. Newbury Park, CA: Sage.
- 16) Chelune, G., Waring, E.M., Vosk, B.N., Sultan, F.E., & Ogden, J.K.(1984). Self-disclosure and its relationship to marital intimac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 216-219.
- 17) Christensen, A.(1988). Dysfunctional interaction patterns in couples In P. Noller & Mary Fitzpatrick(10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Clevedon, England, and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 18) Couillard, G.C.(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lare and dissimilare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of-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19) Coyne, J.C., Kahn, J., & Gotlib, I.H.(1987). Depression. In T. Jacob(Eds.), *Family interaction and psychopathology: Theories, methods, and findings*. New York: Plenum Press.
- 20) Cummings, E.M., & Davies, P.(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The impact of family dispute*

- and resolu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21) DeMaris, A., & MacDonald, W.(1993). Premarital cohabitation and marital instability: A test on the unconventionality hypothe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99-407.
 - 22) Dykstra, L.H.(1996). *Marriage: owner's manual*, Kroshka Books.
 - 23) Edmond, V.H.(1987). Marital conventionalizati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681-688.
 - 24) Eidelson, R.J., & Epstein, N.(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Developmint of a measure of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715-720
 - 25) Filsinger, E.E., & Thoma, S.J.(1988). Behavioral antecedents of relationship stability and adjustment: A 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85-795.
 - 26) Fincham, F.D., & Bradbury, T.N.(1987). The assesment of marital quality: A reevalu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49, 797-809.
 - 27) Fincham, F.D., Grych, J.H., & Osborne, L.N.(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28) Fitzpatrick, M.A., Dindia, K.(1986). Couples and other strangers: Talkative in spouse stranger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13, 625-652.
 - 29) Fwoers, B.J., & Lyons(1996). Positive marital illusions: Self-enhancement or relationship enhance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192-208.
 - 30) Glenn, N.D., & Kramer, K.B.(1987). The marriages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11-825.
 - 31) Glenn, N.D.(1990). Quantitative research o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18-831.
 - 32) Gottman, J.M.(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6-15.
 - 33) Gottman, J.M.(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34) Gottman, J.M., Levenson, R.W.(1988).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marriage. In P. Noller and M. Fitzpatrick(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England: Multilingual Matters*.
 - 35) Halloran, E.C.(1998). The role of marital power in depression and marital distres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3-14.
 - 36) Heavy, C.L.,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37) Holman, T.B., Larson, J.H., & Harner, S.L.(1994). The development and predictive validity of a new premarital assessment instrument: The PREPARation for Marriage Questionnaire. *Family Relations*, 43, 46-52.
 - 38) Huston, T.L., & Vangelisti, A.L.(1991). Socioemotional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marital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721-733.
 - 39) John, O.P.(1990). The 'Big Five' taxonomy: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the natural language and in questionnaires. In L.Pervind(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66-100). New York: Guilford Press.
 - 40) Kelly, E.L., & Conley, J.J.(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7-40.
 - 41) Kirchler, E.(1988). Marital happiness and interaction in everyday surroundings: A time-

- sample diary approach for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375-382.
- 42) Kurdek, L.A.(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53-164.
- 43) Kurdek, L.A.,(1993). Predicting marital dissolution: A 5-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newlyw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No. 2, 21-242.
- 44) Larson, J.H.(1992). "You're my one and only": Premarital counseling for unrealistic beliefs about mate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242-253.
- 45) Larson, J.H., and Holman, T.B.(1994). Premarital predictors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Family Relations*, 43, 228-237.
- 46) Levenson, R.W., & Gottman, J.M.(1985). Physiological and affective predictors of change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85-94.
- 47) Lewis, R.A., & Spanier, E.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pp. 268-294. New York: Free Press.
- 48) Lopez, F.G., Campbell, V.L., Watkins, C.E.(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2-56.
- 49) Long, J.S.(1983). *Covariance structure models: An introduction to LISREL*.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50) MaLanahan, S., & Bumpass, L.(1988). Intergenerational consequences of family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30-152
- 51) Markman, H.J., Renick, M.J., Floyd, F.J., Stanley, S.M., & Clements, M.(1994). Preventing marital distres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training: A 4-or 5-year follow-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70-77.
- 52) Markmna, H.J., Stanley, S., Blumberg, S.L.(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San Francisco, CA: Jossey Bass.
- 53) Martin, T.C., & Bumpass, L.L.(1989). Recent trends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 37-51.
- 54) McAllister, F.(1995). *Marital breakdown and the health of the nation*(2nd ed.). London: One Plus One.
- 55) Melby, J.N., Ge, X., Conger, R.D., & Warner, T.D.(1995). The importance of task in evaluating positive marital intera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981-994.
- 56) Noller, P.(1984). *Nonverbal communication and marital interaction*. Oxford: Pergamon.
- 57) Noller, P., & Callan, V.J.(1989). *Communication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Family Studies Conference, Ballarat, Victoria.
- 58) Noller, P., Feeney, J.A., Bonnell, D., & Callan, V.J.(1994). A longitudinal study of conflict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233-252.
- 59) Noller, P., & Fitzpatrick, M.A.(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32-843.
- 60) Norton, R.(1983). Measuring marital quality: A critical look at the dependent variab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41-151
- 61) Notarius, C., & Pellegrini, D.S.(1987). Differenc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marital discord. In K. Hahlweg & M. Goldstein, *Understanding major mental disorder: The contribution of family interaction research*, New York: Family Process Press.

- 62) O' Donohue, W., & Crouch, J.L.(1996). Marital therapy and gender-linked factors in communic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2, 87-101.
- 63) Olson, D.H., Fournier, D.G., & Druckman, J.M. (1987). *Counselor's manual for PREPARE/ENRICH* (Rev ed.). Minneapolis, MN: PREPARE/ENRICH, Inc.
- 64) Revenstorff, D.B., Vogel, C.W., Hahlweg, K., & Shindler, L.(1980). Escalation phenomena in interaction sequences: An empirical comparison of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Behavior Analysis and Modification*, 4, 97-115.
- 65) Sabatelli, R.M.(1988). Measurement issues in marital research: A review and critique of contemporary survey instru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891-915.
- 66) Schaap, C., Bram, B., & Ada, K.(1988). Marital conflict resolution. pp. 203-244 In, P. Noller & M.A., Fitzpatrick(eds.), *Perspective on marital interaction*. Clevelandon: Multilingual Matters.
- 67) Schafer, R.B., Wickrama, K.A., Wickrama, M., & Patricia M.(1996). Self-concept discontinua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167-177.
- 68) Schumm, W. R., Paff-B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E., Meens, L. D., & Bugaighis, M. A.(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8.
- 69) Spainer, G. B.(1976). Measuring dynamic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70) Sabatelli, R. M.(1988). Measurement issues in marital research: A review and critique of contemporary survey instru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891-915
- 71) Stanley, S.M, Markman, H.J., St. Peters, M., & Leber, B.D.(1995). Strengthening marriages and preventing divorce: New directions in prevention research. *Family Relations*, 44, 392-401.
- 72) Straus, M.A., Hamby, S.L., Boney-McCoy, & Sugarman, D.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73) Swensen, C. H., & Trahaug, G.(1985). Commitment and the long term marriag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939-945
- 74) Ting-Toomey, S.(1983). An analysis of verbal communication patterns in high and low marital adjustment group.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9, 306-319.
- 75) Vailant, G. E.(1978).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VI. Correlates of successful marriage and father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 653-659.
- 76) Wamboldt, F.S., & Reiss, D.(1989). Defining a family heritage and a new relationship: Two central themes in the making of a marriage. *Family Process*, 28, 317-335.
- 77) Weiss, R. L., & Cerreto, M. C.(1980). The marital status inventory: Development of a mesure of dissolution potential.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8(2), 80-85
- 78) Weiss, R.L. & Summers, K.(1983). The marital interaction coding system III. pp. 85-115 in Erik E Filsinger(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Beverly, Hills, CA: Sage.
- 79) Whisman, M.A., Dixon, A..E., & Johnson, B.(1997). Therapists' perspectives of couple problems and treatment issues in couple therap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361-366.
- 80) Whitchurch, G.D., & Pace, J.L.(1993).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and interpersonal violence.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1, 96-102.
- 81) Whyte, M. K.(1990). *Dating, mating, and marriag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82) Wickrama, K.A.S., Lorenz, F.O., & Conger, R.D.(1997). Marital quality and physical illnes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143-155.
- 83) Worrell, J.(1988). Women'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 477-498.